

최근 미국이 윤석열역적패당과 함께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 무슨 《3D전략》이라는 것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3D전략》에 대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의 군사적강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에 대한 근접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방어》로 대응하고 《북도발》에 따른 즉시적이며 단호한 행동으로 공고한 《억지》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항시적인 전비태세유지와 군비증강으로 압박에 압박으로, 북의 주장과 요구는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고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최근 내외여론은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추진과 나토강화, 《가치동맹》연합 등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의정책으로 국제관계에서 《신맹진》적인 구도가 형성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지난 6월말에 진행된 나토 수뇌자회의에서 중국과 로

# 공포에 질린자들의 단말마적발악

이러한 《3D전략》에 따라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공공 무력시위와 공동비행훈련, 《합수작전》에 속련하기 위한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각종 전쟁불장난을 그칠사이없이 벌이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또한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하고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와 《연합제재》, 《다국적제재》에 대해 떠들고있다.

이 부분별한 전쟁대결책동은 최악의 제재압박에서도 자위적국방력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질긴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걸고드는 공화국의 군력강화 조치들로 말하면 인민의 안녕과 국권수호를 위한 자위적리행사이다. 그것이 누구를 위협하는 행위도 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

국을 주적으로 삼고 무력증강과 전쟁소동에 광분하는 등 제한짓는 다하면서 그 무슨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공화국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공화국의 절대적 위협, 군사적강세에 대해 위구를 논할수 없다.

선대선, 강대강, 정명승부, 바로 이것이 공화국의 일관하고 투철한 립장이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을 걸고들며 《3D전략》이니, 《선제타격》이니, 《원점타격》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며 객기를 부리는것은 저들의 무모하고 부분별한 전쟁대결책동으로 인한 근심과 민과 피해의식의 표출인 동시에 뼈속까지 스민 반공화국적대감의 집적적인 발로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불기를 불어오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

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세계적인 핵강국인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허황한 망상이고 어리석은 객기이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광란적인 군사적대결책동은 공화국의 국방력발전을 억제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추동하는 인자도 될뿐이다. 남조선 각계층에서 불필요한 군사적진장을 고조시켜 미국과 남조선의 안보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들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것은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적인 행위에 의해 핵무기는 무장한 미군이 들고앉아있는 남조선에 침략적인 나토무력까지 끌어들여 반공화국, 반중국, 반러시아전선을 펴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이 공화국과 주변핵보유국들의 2중3중의 핵과력으로 전략타격을 당하였고 평가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어리석고 무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친미사대행위는 머지않아 남조선에 핵일처럼 들이닥칠 무서운 참변을 예고해주고있다.

미국과 특등반역집단인 윤석열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참혹한 불행과 재앙을 면할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는 첩리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열마진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벌여놓았다.

까마귀 백번 고아대도 까 육소리뿐이라고 국악무도한 대결광, 특등전쟁광인 윤석열역적패당은 군부호전파들앞에서 《북주적판확립》,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과 같은 극히 호전적이고 대결적인 망발들을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튀어나온 소리마다 악담이고 대결광이어서 대북적대감이 풀수에 찬 대결광의 본색을 다시금 알수 있게 한다.

망둥이 튀니 꿩무리도 편다고 군부호전세력들도 저저마다 침방울을 튀기며 《군운영목표》니, 《6대군운영중점과제》니, 《전략사령부창설》이니 하고 윤석열역적패당앞에서 회뵈게 높아졌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설치는 불망나니의 허세성객기이고 식민지교용병무리들의 가스로운 꼴불견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공화국은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능히 대응해줄수 있고 적을 단

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 초강대국, 핵보유국이다.

이런 상대를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또 미국의 대포박, 식민지교용병 무리에 불과한 남조선 피뢰군마귀가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하는것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다. 미련하고 미숙한 짓거리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미국상전마져 왜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지 못하는가를 이레라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는것은 자멸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망둥이다. 궤진 쪽박과 같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감히 공화국의 가공할 군사적강세를 막아보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제 죽을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가련한 부나비들이다.

공화국은 이미짐에 어떤 세력이든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될것이라 는것을 선언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경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정몽성

##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에 추종해나선 미련한 하수인

시아 그리고 반미적인 나라 들을 《위협》으로 규정한

《전략개념 2022》가 채택된 것은 이러한 분석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미 공개된바와 같이 미국의 주도하에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전략개념 2022》에는 중국을 나토가 대처해야 할 구조적인 도전대상으로 명시하였고 로씨야에 대해서는 동맹안보와 유럽, 인디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공화국을 비롯한 반미적인 나라들도 나토의 《위협》으로 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미국에 등을 돌려 나라들을 다 적수로 규정하고 전면대결을 선포한것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이 일방적이고 편견적이며 도발적인 모의판에 끼어들어 《전략개념 2022》에 대해 지지하는 립장을 밝힌것이 바

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나토까지 끌어들여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모위하고 공화국을 고립압살해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동맹전략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며 남조선을 외세의 치렬한 각축전장으로 만드는 범죄적인 망동이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악성전염병사태까지 겹치면서 조선반도주변국들과의 무력갈등과 공급망전쟁에서 밀리우는 처지에 있다. 미국달러의 패권적지위도 흔들리고있고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군사적패권도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공화국의 핵무력강화를 막기 위해 오래동안 군사적압박과 경제제재를 가하였지만 쓰디쓴 실패만을 겪고있으며 공화국은 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결국 미국은 과거와 달리 혼자서는 패권적지위를

보유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

유지하기 어려운 몰락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을 자인한데로 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동맹강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저들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편가르기와 흡세우기를 시도하며 재앙노릇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번 나토수뇌자회의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동맹전략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위는 신임《정권》의 《안미정책》, 《전략적보호성》정책에서 탈피한 대중, 대로정책의 변화로서 미국의 편에 확고히 서서 반공화국대결은 물론 반중국, 반러시아대결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6월에 있는 지방자치 제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였던 지방권력을 탈환한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를 계기로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변화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방들에서 이전 《정부》의 흔적지우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는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보수여당인 《국민의힘》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내세워 종전에 더불어민주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 지방들에서 벌여놓았던 주요정책들을 뒤집거나 폐지해버리고 전입자들이 구축해놓았던 지방행정기구들을 뜯어고치는가 하면 이전에 임명된 공무원들을 내쫓고 자기 측근들을 올려다하고있다.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저들의 《국정운영》의 돌격위기의 실패와 편이은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취임식 축하를 발송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자주 소통하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민생현장을 찾아가 피해정형을 점검하고 자민봉사 활동도 벌여달도록 하면서 민심을 끌어안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

볼어민주당을 제압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행정부와 군부, 공간기관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여 독재정치의 기반을 다지고 그에 토대하여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와 특권독주중심의 정치를 무난히 해보려는 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속심이다. 그러나 파쇼 독재자들이 가담을 운명의 총착점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역적패도와 그 패거리들은 집권초기부터 극악한 동족대결광, 추악한 사대매국노, 파쇼폭군, 《검찰제국》의 피수, 불망풍, 부정부패의 왕조, 천하의 인간쓰레기, 정치생동이, 체신머리없는 바보 등으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윤석열역적패도와 그 패거리들은 저들이 앞으로 어떤 가련하고 처참한 나락에 굴러떨어지는가를 제논으로 보면서 그야말로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 지방권력장악놀음에 비낀 흑심

의 창의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으로 저들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회유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내세워 민심을 적극 회유기만하면서 반《정부》 회유를 누락하기 위한 음흉하고 비열한 책동도 벌이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경제위기의 실패와 편이은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취임식 축하를 발송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자주 소통하

파괄한 공공기관개혁을 실현하겠다. 경제와 민생살리기를 제1목표로 정하고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고 일자리마련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것이라는 등 온갖 감언리설을 늘어놓게 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개시를 계기로 지방권력장악에 적극 달려들고 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협공으로 의회권력이 더

로 윤석열역적패도와 그 패거리들은 집권초기부터 극악한 동족대결광, 추악한 사대매국노, 파쇼폭군, 《검찰제국》의 피수, 불망풍, 부정부패의 왕조, 천하의 인간쓰레기, 정치생동이, 체신머리없는 바보 등으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윤석열역적패도와 그 패거리들은 저들이 앞으로 어떤 가련하고 처참한 나락에 굴러떨어지는가를 제논으로 보면서 그야말로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 민심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흉책

열마진 윤석열역적패당이 리명박역도의 형집행을 3개월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리명박역도가 앞으로 3개월간 감옥에서 나와 병원과 자택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리명박역도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역도가 어떤자인가. 전대미문의 반인민적악과 특대형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특등범죄자이다.

리명박역도는 집권기간 그 무슨 《잃어버린 10년》을 떠돌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백지화하고 6.15사태에 이룩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렸으며 공동선언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하던 끝에 북남공동선언에 수표한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에 몰아넣었다. 또한

《주적론》을 부활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니, 《금번사태》니 하며 악명높은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가터》 등 대규모의 북침 전쟁연습들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이고 《천안》호사건, 연평도포격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발사건들을 일으켜 정세를 전쟁정계로 몰아갔다.

이어 동족의 대국상에 극악무도한 야만행위로 대담하는 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반인륜적장동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역도는 극악무도한 파쇼통치로 민주의 싹을 모조리 제거하고 독재통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활시켰다.

집권초기부터 《한미동맹관계회복》을 최대의 《국정목표》로 정하고 추악한 친미사대매국행위로 대담하는 가 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형력시대》를 떠들며 친일골종정척추진에 매달린 철

저한 사대매국도 역시 리명박역도이다. 리명박역도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폭압의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대규모초보시위에 대한 야수적인 폭거, 풍산철거민학살사건, 쌍용자동차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만행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리명박역도의 친인척들과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도 모두가 역도와 공모결탁하여 저지른 전대미문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이다.

리명박역도는 민중악에 저지른 이러한 대죄악으로 하여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구형에 처해도는 시원치 않을 역도에게 그 무슨 신형악화를 구실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내린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 망동은 리명박역도와 한통속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가 여실히 드러내것으로 된다.

사실 윤석열역적패도는 집권전에 벌써 리명박역도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때 별이었으며 《대통령》자리에 올라있는 후에는 전례로 볼때 전직 《대통령》을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시키는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리명박역도를 《사면》시키려는 속내를 여러번 드러냈다.

더우기 지난 5월에는 자기 녀편네를 역도의 녀편네에게 보내 《위로》하고 《대통령실》과 행정부내에 리명박역도의 형집행정지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겐 폭압의 칼을 휘두르고 친추에 용납 못할 대죄를 진 천하여 적에게는 관용을 베푸는것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인간쓰

## 토사구팽

이런 전략적인 타산에 따라 친윤석열 결과를 내세워 다 파먹은 김치독에 불과한 리준석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리었고 인강준,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려 하려는것이다.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당권까지 좌지우지하며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흉심에서 리준석을 내쫓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리준석이 양양블락해도 이미 옆지른 물고개 낀 사발이다. 아마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썩은 이발

눈에 든 가시였다.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있던 윤석열역적패당은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고 행정부와 공간기관을 자기의 심복들로 꾸린데 이어 지방권력까지 틀어쥐고 있는것이다.

남조선내부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당권까지 좌지우지하며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흉심에서 리준석을 내쫓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리준석이 양양블락해도 이미 옆지른 물고개 낀 사발이다. 아마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썩은 이발

을 뺏아던진것같이 시원해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을것이다. 가관은 당대표자리를 놓고 친윤석열파가 서로 아웅다웅해대는것이다.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으로 자기가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윤석열》의 핵심인물은 《정경다리 전당대회》를 해서라도 당권을 장악해보려고 한다.

이 판에 정지처분 안철수까지 나서서 한몫 보려고하고있다. 권력야망이란 이렇게 추악한 것이다.

그나저나 리준석이 참 가련하게 되었다.

《정치생동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느라 분주량을 퍼왔지만 종당에는 윤석열역적패도에 의해 이리저리 물러가고 모욕당하다 못해 나중에는 토사구팽당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썩먹을 때는 반기고 필요없을 때는 가차없이 차버리는 윤석열역적패도와 《국민의힘》, 이것이 추악하게 그치지없는 남조선정치의 생리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언론계를 틀어쥐려는 비열한 책동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 일삼고있다.

아직 입기가 남아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하고있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국민의힘》것들은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의 인력부에서 새 《정부》에 이전

《정부》의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것은 《후안무치한 자리욕심》이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였는가 하면 《국무총리》라는 자는 《국무회의》에 그가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은 아레것들의 행위를 비호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은 진보적인 언론들에 대한 탄압에도 광분하고있다.

인터넷언론 《서울의 소리》를 매상시키기 위한 책동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반윤석열역적패당의 앞장서고있는 《서울의 소리》를 허위사실포함으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서울의 소리》의 인터넷계정을 폐쇄시키었다.

원래 《서울의 소리》는 주로 보수매당의 부정부패의혹

들을 폭로하여왔으며 특히 2019년 검찰총장을 해명던 윤석열역적패도와 그 심복들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서자 《검사들의 반란》으로 락인하고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선전하면서 반윤석열역적패당을 벌려왔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국민의힘》소속 《대통령》선거부보로 나섰을 때에는 그의 처김김회가 유충업소에서 《줄리》라는 가명으로 매춘부주, 료을 하였다는것과 정력부조, 추가조작, 검찰과의 유착, 장모의 부정부패, 미신에 빠져 있다는 의혹 등 윤석열역적패당의 앞장서고있는 《서울의 소리》를 허위사실포함으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서울의 소리》의 인터넷계정을 폐쇄시키었다.

원래 《서울의 소리》는 주로 보수매당의 부정부패의혹

들을 폭로하여왔으며 특히 2019년 검찰총장을 해명던 윤석열역적패도와 그 심복들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서자 《검사들의 반란》으로 락인하고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적극 선전하면서 반윤석열역적패당을 벌려왔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국민의힘》소속 《대통령》선거부보로 나섰을 때에는 그의 처김김회가 유충업소에서 《줄리》라는 가명으로 매춘부주, 료을 하였다는것과 정력부조, 추가조작, 검찰과의 유착, 장모의 부정부패, 미신에 빠져 있다는 의혹 등 윤석열역적패당의 앞장서고있는 《서울의 소리》를 허위사실포함으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서울의 소리》의 인터넷계정을 폐쇄시키었다.

원래 《서울의 소리》는 주로 보수매당의 부정부패의혹



본사기자 박철남